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원숙연

본 연구는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인식지형을 살피고, 1996년과 2010년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지형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1996년과 2010년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성-역할고정관념을 1)성별화된 자원(권력)의 배분, 2) 남성부양자 역할, 3) 엄마역할로 세부 차원화하고, 각각의 차원의 인식지형과 지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성-역할고정관념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성별화된 자원배분 차원에서 성-역할고정관념적 평가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1996년이나 2010년 모두 성별화되어 있으며, 2010년에 인식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미혼여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가족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이 여성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엄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지형은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경제위기와 연결하여 논의하고, 여성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았다.

주제어: 성-역할고정관념, 여성정책, 남성부양자인식, 엄마역할, 경제위기

*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여성과 조직, 다문화 및 소수자정책 등이다(sywon@ewha.ac.kr)

I.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이다(Ingram, et al., 2007). 시간과 공간적 맥락이란 시기와 장소의 차이와 같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는 물론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관념, 이데올로기 등 추상적인 요소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특정 사회와 특정 시기의 인식, 관념, 이데올로기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특정정책이슈를 둘러싼 인식과 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물론 특정의 인식이나 관념 또는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는 않지만(조순경, 199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고, 어떠한 계기가 생기면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전자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해가는 ‘부기모형’(bookkeeping model)이라면, 후자는 인식의 틀을 바꿀만한 현저하고 중요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모형(conversion model)이다(Ragins and Sundstrom, 1990). 부기모형이든 전환모형이든 속도와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과 관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변화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처럼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과 변화가능성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정책에 갖는 함의가 가볍지 않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식, 관념 및 이데올로기와 정책 내용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책내용과 인식간의 정합성이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르고, 양자 간의 정합성이 높은 경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하나의 ‘상징적 제스처어’로 남게 된다(cf. 원숙연, 200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책 관련 논의에서 그 정책이슈를 둘러싼 인식과 관념 및 이데올로기의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은 기반으로 하여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노동시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상당히 경직적인 성-역할이분법을 당연시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이후,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성-역할의 변화를 전제한 여성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여성노동 및 일-가족 양립의 지원을 통해 엄마역할(아빠역할)과 노동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들 여성관련 정책의 형식적 내용은 여성평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보였다고 평가되는 서구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더 선진적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형식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작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평가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원숙연, 2005). 것처럼 회의적인 평가는 형식적으로 선진적인 여성관련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이나 이데올로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lag)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성-역할고정관념의 지형 및 그 지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6년과 2010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6년과 2010년의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다(통계청, 2010).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성-역할고정관념과는 다른 사회적변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성관련, 특히 여성노동 관련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1998년 소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남성의 실업이 가속화되고, 그 공백을 여성이 메우는 형태로 노동시장과 가정간의 이분법이 현실적으로 약화되었다(조순경, 1998; 김수정, 2014). 여기에 더하여 2008년 금융위기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위기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양상의 변화는 성-역할고정

관념에 일정한 균열을 가져올 계기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겪기 직전인 1996년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거기에 더하여 IMF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를 모두 겪은 후인 2010년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성-역할고정관념의 지형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지형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는지, 만일 변화하였다면 어떠한 양상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역할고정관념을 둘러싼 인식의 지형 및 시기에 따른 지형변화가 여성노동관련 정책에 갖는 함의를 밝힌다.

II. 이론적 논의

1. 성-역할 고정관념: 개념과 작동원리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은 특정집단의 구성원이 갖는 성격, 성향, 그리고 행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집단에 속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띤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역할고정관념과 인종-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인간이 가지는 인지적 한계와 희소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희소자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지적 한계와 시간 및 비용의 제약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방법이 바로 평가대상을 집단별로 나누어 범주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범주에 의한 정보처리이며, 이러한 범주화의 결과가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적 평가는 정보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범주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여과하며 심지어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Mayerson, et al., 1996; Powell, et. al., 2002)).

한편, 이처럼 인간이 가진 인지적 한계와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고정관념은 인지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작용을 한다. 즉 범주에 의한 고정관념적 평가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치판단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지과정을 단순화하는 심리적 틀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의미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신념, 아이디어, 의견 그리고 가치의 유형으로, ‘무엇이 존재하며’(what exists), ‘무엇이 좋은 것이고’(what is good), ‘무엇이 가능한가’(what is possible)를 규정한다(Freeden, 2003; quoted in Johnston & Swanson, 2006: 509). 이데올로기는 특정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Therborn, 1980), 고정관념이 바로 그 처벌과 보상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고정관념은 개인의 개별적 행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성-고정관념에 근거한 젠더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성-고정관념에 근거한 젠더관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을 둔다(Bem, 1993: 1-3). 첫째, 남성중심주의로 남성의 경험이 기준(norm)이 되고 그것과 다른 경험(즉 여성의 경험)은 기준을 벗어난 ‘이상한’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남성(성)우위를 전제한다. 둘째, 생물학적 근본주의(biological essentialism)로, 남성(성)과 여성(성)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인 따라서 생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남녀의 역할 사이의 이분법은 자연스럽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의 것으로 규정된다.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고정관념은 다음의 경로로 개인의 행동과 상호관계에 작용한다(Johnston & Swanson, 2006: 참고문헌). 첫째,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인지적 일관성이란 기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방식에 따라 대상이나 현상을 판단하려는 경향이다. 인지적 일관성은 선택적 정보처리를 야기하는데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는 여과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택적 정보처리는 자연스럽게 인지왜곡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여성 또는 남성을 평가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고정관

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탐색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관계를 평가(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성-고정관념에 부합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성-고정관념의 작동을 지속한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 간호사, 유치원교사, 여성관련업무 수행 등),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적용영역의 다차원성

모든 사회현상은 그 자체로서 다차원적인 것처럼, 성-역할고정관념 역시 다차원적 구성물이다. 이들 구성차원은 상호 일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차원이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현실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불완전대표성을 갖는다(Law and Chi-Sum, Wong, 1999). 이들 각각의 차원이 모두 논의될 때 현실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되지만, 다차원적인 개념을 단일차원으로 전제하여 논의할 경우, 현상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이상의 논의의 맥락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고정관념의 적용범위를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는 공사영역의 이분법(public-private dichotomy)이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영역과 가정으로 표상되는 사적영역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고, 전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후자는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들 두 영역 간 경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준수할 경우는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반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남성부양자 역할 차원으로 확장된다.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에 따르면(O'Connor, et al., 1999; Lewis, 2001; Crompton, 2001; 원숙연, 2005), 남성(아버지)은 노동시장으로 표상되는 공적영역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어머니)은 가정에서 가족에게 보살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상가족'이다. 아버지의 일차적인 공간은 노동시장이며, 어머니의 일차적인 공간은 가정이기 때문에, 만

일 각각 자신의 집단에게 부여된 공간을 떠나는 경우, 인지의 불일치가 생기고 이는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외부로부터 부여되기도 하지만, 여성(어머니)이나 남성(아버지)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남성이 노동시장에 나가기 않고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 타인은 물론 남성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된다. 남성은 가족 생계의 책임자라는 인식은 남성의 임금에 가족구성원의 부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family wage ideology)로 확장된다(조순경, 1998)

이상의 공-사 영역의 이분법 차원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각각 확장되는데 이러한 확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다. 전통적 의미의 공-사이분법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을 남성은 노동시장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공-사이분법의 현실적 설명력이 약화되었다. 전통적 인식과 현실의 괴리에 따라 성-역할고정관념이 조금 다른 형태로 확장 적용된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이다. 두 번째 차원은 공적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성별화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였다 해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에게는 ‘부적절한’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영역의 점유자인 남성에게 공적 영역에서의 자원과 권력(지위)이 보다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 것이다(cf. (Lewis, 2001; Crompton, 2001).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의 세 번째 차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확장된 것으로, 엄마역할과 관련된다(Geist, 2005; Boca et al, 2009). 공-사 이분법과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성-역할고정관념은 여성의 일차적 공간을 가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사적영역의 책임자인 여성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엄마역할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모성박탈(maternal deprivation)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모성박탈의 핵심은 엄마(역할)의 부재가 영유아기 아동의 정서적(심리적)발달 및 안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이는 영유아기 엄마의 역할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성박탈이테올로기를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에 대한 보살핌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교육의 책임이 거의 모두 엄마에게 주어지는 곳에서는 엄마역할 차원에서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Sung, 2014; Pascall & Sung, 2014; 노성숙 외, 2012).

3. 성-역할고정관념과 경제적 위기의 역할

본 연구가 1996년과 2010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지형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1998년과 2008년에 있었던 경제위기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상황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이분법이나 자원의 배분, 그리고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논의에 따르면(민경희, 2003; 김수정, 2014; 차유경·원숙연, 2014; Bittman et al., 2003; Berik and Kongar, 2013; Fukuda-Parr, et al., 2013), 경제위기는 여성노동 및 성별고정관념에 몇 가지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경제상황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여성노동으로 남성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민현주·임희정, 2010; 차유경·원숙연, 2014). 이와는 반대의 논리로 경제위기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다(조순경, 1998; 김수정, 2014; 차유경·원숙연, 2014; Seguino, 2009).. 1998년 소위 IMF 외환위기 시기에 남성보다 여성노동자의 해고가 7배 이상 높았던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두 번째 영향력은 경제상황과 여성고용간의 관계는 성-고정관념적 관행 및 인식에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은 성-역할고정관념, 그리고 가정 내 젠더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적노동자(added workers)가설에 따르면(Fukuda-Parr, et al., 2013), 전술한바와 같이

경제적 위기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기도 하지만, 실업한 남성노동자를 대신해서 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기침체에 (기혼)여성의 유급노동이 늘어나도 남성의 무급노동이 증가하지 않고, 성-역할 이분법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노동은 일종의 부가적 노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노동은 경제위축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입된 부가노동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성-역할 이분법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기까지 한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으로 인해 자신들이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느끼면서 반대로 남성성을 더 강조하는 등 성-역할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이다(Berik and Kongar, 2013). 여기에 더하여 여성도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때문에 젠더역할갈등을 겪는 남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성-역할 이분법에 오히려 더 순응하기까지 한다(Bittman et al., 2003). 미국에서 2008년 경기침체에 남성은 실업으로 인해 전체노동시간이 주는데 반해 여성은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Berik and Kongar, 2013),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논의에 따르면(Mazerolle & Singh, 2004; Johnston & Swanson, 2006; Boca, et al., 2009), 경제위기와 같은 노동시장 수요차원의 변화가 생기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높아지고 이 경우 공(남성=노동시장)-사(여성=가정)의 성별화된 이분법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엄마역할에 대한 강조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미 1998년 소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났고(윤성호, 2011; 김수정, 2014), 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 논리가 남성부양자 및 가족임금이데올로기와 함께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조순경, 1998). 이처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엄마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한다.

Ⅲ. 실증분석

1. 실증자료 및 특성

1996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의 지형과 그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가치조사는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약 5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는 대표성과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조사이다(원숙연, 2013). 조사분야는 가치관, 환경, 일,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사대상국가 중 하나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10년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특히 일과 가족에 대한 성별인식의 존재양식과 그 변화에 주목하였다.

1996년과 2010년을 연구대상시기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010년은 가장 최근 조사시기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96년을 시작점으로 하는 이유는 서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의 근간이 되는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져온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기 때문이다(조순경, 1998; 통계청, 2010; 김수정, 2014).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사이분범과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의 현실적 기반이 변화하였다. 셋째, 비슷한 맥락에서 1990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더하여, 1998년 소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남성의 실업이 높아지고, 이 공백을 여성이 메우는 형태로 노동시장과 가정간의 이분범이 현실적으로 급격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의 변화를 경험하기 직전시기인 1996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2010년의 15년간 IMF 경제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성-역할고정관념이 기반하고 있는 공-사이분범에 영향을 미칠 맥락으로 작용

할 여지가 많았다.¹⁾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1996년도 2010년의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1996년		비중(%)	2010년	
		빈도		빈도	비중(%)
성별	여성	637	51.0	608	50.7
	남성	612	49.0	592	49.3
연령	10대	10	.8	20	1.7
	20대	389	31.2	230	19.2
	30대	323	25.9	261	21.8
	40대	266	21.3	274	22.8
	50대	180	14.4	194	16.2
	60세 이상	79	6.3	221	18.4
학력	초졸 이하	149	11.9	67	5.6
	중졸	145	11.6	93	7.8
	고졸	497	39.9	352	29.3
	전문대졸	138	11.1	162	13.5
	대졸	318	25.5	526	43.8
혼인	미혼	351	29.7	348	31.6
	기혼	829	70.3	752	68.4
자녀수	자녀없음	340	28.1	373	31.7
	1명	166	13.7	164	13.9
	2명	365	30.1	407	34.6
	3명이상	340	28.1	234	19.9

1) 우리나라에서 세계가치조사(WVS)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82년이고, 90년대는 1996년 한 해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데 1996년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가 시작점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2001년, 2005년 2010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1999년과 2008년 경제위기가 모두 포함되면서 동시에 가장 최근의 인식인 2010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96년과 2010년 표본의 구성 및 특성의 유사성이 확보되었다. 학력은 2010년에 대졸이상이 1996년에 비해 조금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하지만, 성별, 연령, 자녀수 등의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 1996년과 2010년 모두 기혼이 미혼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지만, 설문 내용의 내용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가치조사는 다양한 차원의 인식을 묻는데,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life), ‘환경문제’(environment), ‘일’(work), ‘가족’(family), ‘정치와 사회’(politics and society), ‘종교와 도덕성’(religion and morale), 그리고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등이 그것이다. 이들 구성개념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역할고정관념은 ‘일’ 과 ‘가족’차원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전술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1)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 차원에서 남성부양자역할, 2) 공적영역의 확장차원에서 성별화된 자원(권력)배분, 3)사적영역의 확장차원에서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의 척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성-역할고정관념 적용차원		문항	
공-사 영역의 이분법	남성부양자 역할	남성일자리 우선	일자리가 귀할 때에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수입갈등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공적영역의 확장	성별화된 자원(권력) 배분	정치지도자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사적영역의 확장	엄마역할	모성박탈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엄마역할 만족	엄마역할은 직장의 일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

출처: 세계가치조사(WVS), 1996, 2010

먼저,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간 이분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일차적인 공간은 노동시장이며, 어머니의 일차적인 공간은 가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남성부양자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로 구성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임금이데올로기의 수용정도로, 가족부양자인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성-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수용정도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은 공-사영역의 이분법을 기초로 하여 공적영역의 확장과 사적영역의 확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적영역의 확장은 사회적 자원 및 권력의 성별편중화에 대한 척도이다. 공-사이분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정치영역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통해, 공적자원(권력)은 남성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공적영역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대표적 요소인 대학교육의 기회를 남성에게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세 번째 차원은 사적영역의 확장으로 엄마역할(motherhood)에 대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을 떠나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아이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모성박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맥락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모성박탈의 핵심은 엄마(역할)의 부재가 영유아기 아동의 정서적(심리적)발달 및 안녕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이러한 인식의 기반은 엄마의 역할은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엄마역할에 부합하는 전업주부의 역할과 일하는 엄마의 역할 간 사회적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양자 간의 등가성(等價性)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로 구성하였다.

또 하나, 연구자가 직접 척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성-역할고정관념을

구성하는 각각의 차원별로 보다 많은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현실을 좀 더 다각적으로 규명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국*내외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가치조사는 성-역할고정관념에 관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1000명이 넘는 비교적 많은 수의 표본으로 구성됨으로써 대표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IV. 실증결과 및 논의: 여성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아서

1. 성-역할 고정관념의 존재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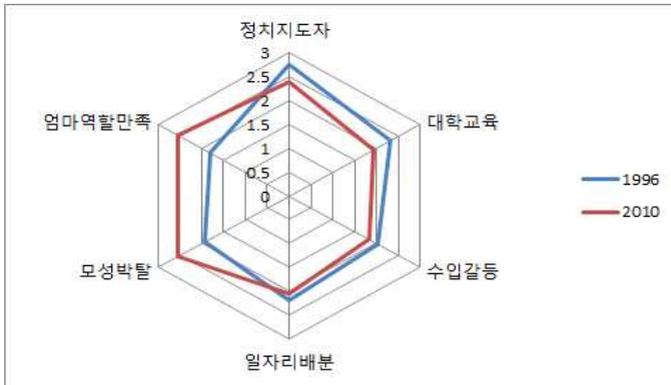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6년과 두 번에 걸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인 2010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존재양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위해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그 <표 3>과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문항에서 1996년과 2010년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 성-역할고정관념의 차원별 비교(1996년, 2010년)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	연도	N	평균 (SD)	t-value
남성 부양자 역할	수입갈등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1996	1236	2.04 (.386)	9.277 ***
			2010	1166	1.83 (.695)	
	남성일자리 우선	일자리가 귀할 때에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 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1996	1236	2.19 (.797)	4.636 ***
			2010	1166	2.04 (.753)	
성별화된 자원 배분	정치지도자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다	1996	1236	2.73 (.788)	10.721 ***
			2010	1166	2.38 (.832)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1996	1236	2.32 (.860)	11.401 ***
			2010	1166	1.93 (.837)	
엄마 역할	모성박탈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1996	1236	1.92 (.652)	-20.902 ***
			2010	1166	2.54 (.790)	
	엄마역할 만족	엄마역할은 직장의 일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	1996	1236	1.81 (.643)	-25.128 ***
			2010	1166	2.55 (.803)	

+p<.1, *p<.05, **p<.01, ***p<.001

<그림 1> 성-역할고정관념의 차원별 지형 (1996년, 2010년)



구체적으로 남성부양자 역할과 성별화된 자원(권력)의 배분 차원은 모두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상-고정관념적 평가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됐다. 이는 15년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는 물론 그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고, 두 번에 걸친 경제위기의 경험 등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라는 젠더화된 이분법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화된 자원(권력)배분 차원에서 상-고정관념의 상당한 변화가 포착된다. 물론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남성의 전유영역으로 인식되어왔던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15.7%)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치영역에서 여성비중은 높지 않지만(통계청, 2013), 비례대표의원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정치영역에서 성별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학교육의 경우, 1996년에 비해 2010년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훨씬 많이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 28%였던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이 2005년 80%로 급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82.4%로 남학생(81.6%)을 앞서는 현실을 감안할 때(통계청, 2011), 이러한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육기회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별인식이 완화되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표 3>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 일자리 배분에 있어서 여전히 경직적인 성별인식이 존재하고, 그러한 인식은 1996년과 2010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15년의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은 남성들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견제한데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가족임금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남성일자리 우선시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 교육을 통한 여성인적자본

의 향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 등의 요소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수요차원의 변화와 압력이 일자리를 둘러싼 성-역할고정관념의 변화를 일정부분 억제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cf. Bittman et al., 2003; Berik and Kongar, 2013; Fukuda-Parr, et al., 2013).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결과는 엄마역할을 둘러싼 성-고정관념의 지형변화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부양자 역할 및 사회 자원의 배분 차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고정관념적 평가가 조금이라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엄마역할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적 평가가 1996년에 비해 2010년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강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아이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력과 ‘워킹맘’으로서의 만족감 차원 모두 2010년이 1996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어났는데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는 오히려 강화된다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2000년대 들어와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통계청, 2011),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가 44%, 홑벌이 42%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홑벌이 가구비중을 넘어섰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점은,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혼여성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정부가 일-가족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정책과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의 간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하나,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엄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결과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수록 엄마역할이 데올로기가 더 강해진다는 기존의 연구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cf. Mazerolle & Singh, 2004; Johnston & Swanson, 2006; Boca, et al., 2009).

2. 성-역할고정관념 지형 형성의 영향요인

1) 요인분석

이상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둘러싼 차원별 지형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지형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들 각 차원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이 1996년과 2010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요인분석

문항	성별화된 자원배분	엄마역할	남성부양자역할
대학교육	.789	-.063	-.297
정치지도자	.768	-.041	-.282
남성일자리 우선	.748	.068	-.210
모성박탈	.097	.822	-.259
엄마역할만족	-.131	.791	.353
수입갈등	.381	-.018	-.939
Eigenvalues	2.083	1.309	.771
% of Variance	34.724	21.811	12.852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적 논의에서 성별화된 자원배분 차원으로 설정했던 대학교육과 정치지도자에 관한 문항과 엄마역할 차원으로 논의했던 모성박탈과 엄마역할만족은 이론적 논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론적 논의에서 남성부양자 역할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던 ‘남성일자리 우선’ 문항이 성별화된 자원배분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성부양자 역할은 ‘부인이 남편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수입갈등만이 남았다. 사실, 성별화된 자원배분에서 자원을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라고 볼 때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이해가능하며, 논리적

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또한 남성부양자역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일차적 부양자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이 많아야 하고 이러한 수입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family wage)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회귀분석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엄마역할은 모성박탈과 엄마역할만족으로, 성별화된 자원배분은 정치지도자, 대학교육, 일자리 우선배분을 모두 포함하고, 남성부양자역할은 수입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이 성-역할고정관념자적 인식의 지형 및 지형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에 작용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이념, 계층인식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존논의에 따르면, 성-역할고정관념을 포함한 고정관념적 평가에 이념적 지향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념적 성향을 보수-진보로 구분할 때,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경우, 결과의 평등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이나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에 대한 전향적 지향을 가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념성향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Funk, 2000; Heilman, 2001; Dennis & Kunkel, 2004; Pantoja, 2006). 이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각각의 차원에 이념성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를 추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경제적인 상황과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1999년의 소위 IMF 경제위기와 2008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의 인식차이에 관심을 두었다. 경제적인 상황이 성-역할고정관념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다

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

<표 5>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의 영향요인(1996)

1996	성별화된 자원(권력)배분			남성부양자 역할			엄마역할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851		16.436***	2.066		26.985***	1.817		17.154***
성별	.277	.227	8.078***	.058	.077	2.496*	.164	.154	5.093***
연령	.095	.190	4.538***	-.001	-.004	-.090	.022	.051	1.123
학력	-.044	-.093	-2.760**	-.017	-.059	-1.603+	-.028	-.068	-1.885*
혼인	.081	.059	1.364	.046	.055	1.157	-.046	-.039	-.832
자녀수	.030	.057	1.114	.002	.007	.133	.013	.028	.510
정치이념	.046	.080	2.859**	.025	.069	2.257*	.042	.082	2.726**
경제상태만족	.017	.026	.884	-.024	-.061	-1.891*	-.045	-.081	-2.538*
R ²	.181			.129			.050		
F	30.811***			4.140***			7.378***		

p<.1, *p<.05, **p<.01, ***p<.001

주: 성별(여성0, 남성1), 혼인(미혼0, 기혼1), 정치이념(높을수록 보수적), 경제상태(높을수록 만족)

<표 6>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의 영향요인(2010)

2010	성별화된 자원(권력)배분			남성부양자 역할			엄마역할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823		14.184***	1.671		10.927***	2.750		21.281***
성별	.243	.200	6.919***	.164	.119	3.932***	-.095	-.084	-2.704**
연령	.066	.152	3.419**	.068	.138	2.952**	-.025	-.060	-1.260
학력	-.059	-.114	-3.240**	-.058	-.098	-2.686**	.010	.022	.576
혼인	-.027	-.020	-.405	-.174	-.117	-2.234*	.078	.064	1.184
자녀수	.065	.120	2.177*	.074	.121	2.082*	.003	.006	.095
정치이념	.051	.086	2.972**	.037	.055	1.799*	.014	.025	.808
계층인식	-.002	-.003	-.093	.013	.015	.452	-.014	-.020	-.585
경제상태만족	-.025	-.040	-1.263	-.035	-.049	-1.478	-.047	-.080	-2.389*
R ²	.147			.172			.018		
F	22.938***			10.187***			2.490*		

p<.1, *p<.05, **p<.01, ***p<.001

주: 성별(여성0, 남성1), 혼인(미혼0, 기혼1), 정치이념(높을수록 보수적), 경제상태(높을수록 만족)

2) 정치이념에 대한 논의와 개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심사자 분들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회귀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가 제기된다. 먼저, 전반적인 차원에서 1996년과 2010년 성-역할고정관념적 인식에 있어서 영향요인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996년의 경우, 성별화된 자원배분은 성별(남성)>연령(높을수록)>정치이념(보수적)>학력(낮을수록)의 순으로 남성에게 정치적 자원, 대학교육 그리고 일자리의 기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남성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성별(남성)>정치이념(보수적)>경제상태 만족(낮을수록)> 학력(낮을수록) 순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역할과 가족임금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수용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엄마역할에 대해서는 성별(남성)> 정치이념(보수적)>경제상태 만족(낮을수록)> 학력(낮을수록)의 순으로 전통적인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1996년 조사에 기초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수용이 안정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2010년의 경우, 성별화된 자원배분은 성별(남성이)>연령(높을수록)> 학력(낮을수록)>정치이념(보수)>자녀수(많을수록)의 순으로 고정관념적 인식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영향요인이 갖는 방향성이나 순위는 1996년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1996년과는 달리 자녀수의 영향력이 나타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남성부양자 인식은 성별(남성)>연령(높을수록)>학력(낮을수록)>혼인(미혼)>자녀수(많을수록)>정치이념(보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연령과 혼인의 영향력이 발견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은 성별(여성)>경제상태 만족(낮을수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에 나타는 결과는 물론 기존의 관련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엄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세부적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자녀수가 갖는 영향력이다. 1996년의 경우, 성-역할고정관념을 구성하는 세 차원 모두에서 자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2010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성별화된 자원배분이나 남성부양자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성-고정관념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6년에 비해 2010년 인식의 변화가 갖는 함의는 관련연구가 보다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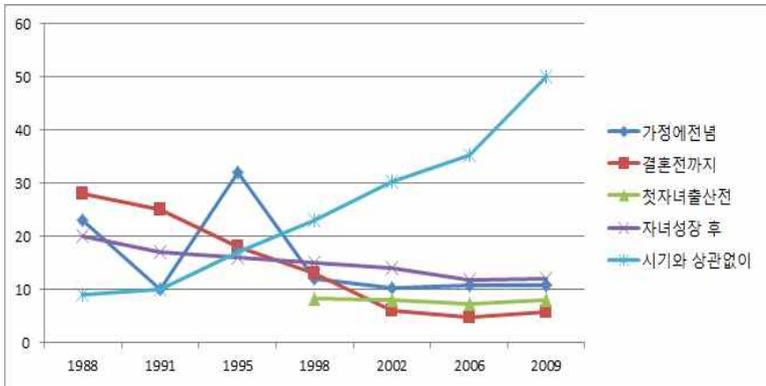
적되어야 하겠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심화된 출산율과 사교육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6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1.2명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1년에 20조를 넘는 사교육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통계청; <http://www.kostat.go.kr/survey/pedu/index.action>). 더욱이 1996년 이후 두 번에 걸쳐 나타난 경제 위기는 아이가 많아서 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 남성의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결과는 혼인의 영향력이다. 1996년에는 혼인여부가 성-역할고정관념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0년의 경우, 가족임금이테올로기에 기초한 남성부양자 역할 차원에서 혼인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기혼일수록 가족남성부양자역할을 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역할고정관념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혼인의 영향력이 2010년 그 중에서도 남성부양자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기혼이 오히려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1996년만 해도 2010년에 비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라는 이분법이 광범위하게 공유됨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이를 다르게 인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남성부양자 역할의 현실적 설명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미혼의 경우는 가정생활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데 반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기혼의 경우, 남성이 혼자 벌어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적 인식보다는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자신의 부양자로서의 부담을 함께 공유하기를 현실적으로 바라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 부양자로서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미혼과 기혼의 인식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식차이는 1999년과 2008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인 2010년에 보다 현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10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그림 2>에서도 포착된다. <그림 2>는 기

혼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적합한 시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 (1988-2009)



출처: 통계청

주: '첫 자녀출산 전' 항목은 1995년 조사까지는 부재(不在)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90년대 후반이전까지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적기(適期)는 결혼 전과 자녀 성장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1995년에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결국, 90년대 중반까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혼남성의 인식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이처럼 보수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시기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언제나 참여해야한다’는 응답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가정전념이나 그 외의 응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통계청, 1998; 2009).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1996년과 달리 2010년에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혼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논제는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거시적인 경제상황과 미시적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간의 역할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996년의 경우, 남성부양자 역할과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 모두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고정관념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0년에는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력이 남성부양자 역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에 안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높을수록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가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게, 그리고 엄마와 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 수행의 만족도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경제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높을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을 경우 실제 경제적 여유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할 ‘보살핌의 공백’(care deficit)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경제적 상황이 좋다는 것은 양질의 보살핌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모성박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엄마역할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를 재확인한다(이재경, 외, 2006; 노성숙 외, 2012).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결과는 엄마역할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의 지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엄마역할에 있어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성별화된 자원배분이나 남성부양자역할 차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2010년은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나 정치이념에 따라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고 공유되고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해지는 현실적 필요를 감안한다면, 엄마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일하는 엄마는 ‘슈퍼맘이 콤플렉스’에 시달린다는 기존 논의를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이재경, 외, 2006; 노성숙 외, 2012; 원숙연, 2014).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또 하나 발견되는데,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여성이 남성보다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역할고정관념이 많고, 1996년에는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문제는 2010년 결과로 엄마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모성박탈과 주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활발해진 2010년에 오히려 여성이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모순적 현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6년에 비해 2010년 기혼여성은 왜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아이들에게 가해질 부정적인 결과를 남성보다 더 높게 인식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여성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집중적 엄마역할’(intensive motherhood)개념이 통찰을 제공한다. 집중적 엄마역할이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정에서만 머물던 전업주부가 제공하던 보살핌의 제공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Johnston & Swanson, 2006). 서구에서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집중적 엄마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요구에 대해 서구의 기혼여성들은 엄마역할을 재규정하거나 남성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연령이 많은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사회적인 계층이 높은 낮은 상관없이 ‘엄마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균일하게 느낀다거나(원숙연, 2014), 일하는 엄마는 ‘모성애도 없는 독한 엄마’로서의 죄책감과 ‘슈퍼맘 콤플렉스’에 시달린다는 연구(노성숙, 외 2012) 등이 이를 반증

한다.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은 물론 교육 및 교육성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엄마에게 있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부재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는 모두 엄마의 ‘잘못으로’(blame) 돌아오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역할에 대한 상-고정관념적 평가를 더 높게 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공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시대와 특정 공간에 지배적이고 공유되는 인식, 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정책이기에, 정책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구성물이다 (Ingram, et al., 2007). 따라서 특정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책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중심으로 그 지형을 살피고, 1996년과 2010년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인식 지형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성-역할이분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시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1998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친 경제위기와 그와 관련한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성별역학의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갖는 의미가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지형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단순 ‘시간의 문제’(matter of time)를 넘어서, 거시적인 맥락이 작용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6년과 2010년 세계가치조사의 성-역할고정관념을 1)성별화된 자원(권력)의 배분, 2) 남성부양자 역할, 3)엄마역할로 차원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성별화된 자원배분 차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적 평가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치영역이나 대학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둘째, 그

에 반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1996년이나 2010년 모두 매우 낮고, 더욱이 2010년에 인식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미혼여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남성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남성부양자인식과 가족임금이데올로기의 견재가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견재는 두 번에 걸친 경제위기의 영향력과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엄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지형은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더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남성보다 여성이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늘어났고, 아내소득 비중이 1998년 14.2%이어서 2007년 18%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김수정, 2014). 엄마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여성이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결국, 기혼여성에게는 갈등하는 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까? 일하는 엄마가 엄마역할에 대한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면 될까? 그 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선진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원숙연, 2005; 2014). 그 긍정적인 영향력은 실증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원숙연·이동선, 2012; 이동선·원숙연, 2013).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송다영 외, 2010; 허남재·석재은, 2011).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하면서 그간 시도되었던 일-가족 양립정책이 완전했다거나 반대로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형식주의의 관점에서의 고민을 제기하고자 한다. 형식주의는 “한 제도가 규율하고자하는 목적과 실제 관행 간의 격차”로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다(이종범,

1986: 53). 만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이 있다해도,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형식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의 형식적인 측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원숙연, 2005;2014; 송다영 외, 2010; 허남재·석재은, 2011), 형식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여성노동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형식주의적 요소의 한 원인이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의 역설일 수도 있다. 정책이나 제도는 하드웨어이다. 그러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가치 또는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 더 견고한 경향이 있다. 맞벌이 가구가 대세가 되는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젠더관계는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바로 현실적 토대와 인식간의 불일치(mismatch)를 보여준다(조순경, 1998).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함께 시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무용론(無用論)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논의하면서 엄마역할을 중심으로 한 성-역할고정관념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과 같은 하드웨어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수 있다. 그간 한국정부는 보육을 중심으로 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 왔다. 때로는 맥락이 다른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나 제도를 빌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적 정책을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은 존재 그 자체로서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하드웨어인 형식적인 정책만을 제시하는 것은 상징적 수사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 정책은 인식과 함께 움직일 때 견고해지며 정책의 효과성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할 때 성취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는 여전히 건재한 엄마역할을 둘러싼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노력이 선행·적어도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본 연구가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작은 시도이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금재호·윤자영. 2011.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화·성시정. 1999. “경제위기와 남성성의 위기”, 《여성문제연구》, 24: 1-18.
- 김수정. 2014.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시뮬레이션 방법의 적용”, 《조사연구》, 15(1): 93-122.
- 김영미·한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분해”, 《한국사회학》41(5): 35-63.
- 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민경희. 200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 역할과 이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2).
-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27-52.
- 원숙연. 2005.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8.
- 원숙연. 2013. “젠더-정책레짐(gender policy regime)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지형분석”, 《국가정책연구》, 27(4): 5-38.
- 원숙연. 2014. “정책? 인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요인”, 한국여성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원숙연·이동선. 2012.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 윤성호. 2008. 여성가주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 67-94.
- 이동선·원숙연. 2013.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1(2): 229-255.

- 이재경·이은아·조주은. 2006. “기혼 취업 여성의 일, 가족생활 변화와 한계: 계층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2):41-79.
- 조순경. 1998.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치, 《한국여성학》, 14(2):5-33.
- 차유경·원숙연. 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23(3): 303-327.
- 통계청. 2011.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 통계청. 2011. 《사회지표》
- 허남재·석재은. 2011. “한국의 보육료 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139-163.
- 홍승아. 2010.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 《젠더리뷰》, 16: 66-71.
- Agarwal, B. 1997. “Barigaing and Gender Relations: Within and Beyond the Household”, *Feminist Economics*, 3(1):1-51.
- Berik, G. and Kongar, E. 2013. “Time Allocation of Married Mothers and Fathers in Hard Times: The 2007-2009 US Recession”, *Feminist Economics*,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14.
- Boca, D. and Pasqua, S., Proznato, C. 2009. “Motherhood and market work decisions.” *Oxford Economic Papers*, 61, 147-171.
- Crompton, R. 2001. “Gender Restructuring, Empolymnt and Caring”. Social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8(3): 266-291.
- Dennis, M. & Kunkel, A. 2004. Perceptions of Men, Women and CEOs: The Effects of Gender Ident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2(2): 155-172.
- Elvin-Nowak, Y. and Thomsson, H.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and Society*.15: 407-428.
- Freeden, M. 2003. *Ide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da-Parr, S., Heintz, J. & Seguino, S. 2013, “Critical Perspectives on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Heterodox Macroeconomics meets Feminist” *Economics, Feminist Economics*, 19(3): 4-31 .
- Funk, C. 2000. “The Dual Influence of Self-Interest and Social Interest in Public Opin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1): 37-62.
- Geist, C. 2005. “The Welfare State and the Home: Regime Differences in the Domestic

- Division of Lab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1): 23-41.
- Heilman, M. 2001. Description and Prescription: How Gender Stereotypes Prevent Women’s Ascent Up the Organizational Ladder,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657-674.
- Ingram, H. Schneider, A.,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IPU,
- Johnston, D. D. and Swanson, D. H.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509-519.
- Lewis J. 2001. “The Decline of the Male-Breadwinner Model: Implications for Work and Care”. *Social Policy*: 2(3): 159-173.
- Mabsout, R. and Staveren, I. 2010, “Disentangling Bargaining Power from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 to Institutions: Evidence on Women's Position in Ethiopia”, *World Development*, 38(5):783-796.
- Marzerole & Singh. 2004. “Economic and social correlates of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3): 717-730.
- O'Connor, J. and Orloff, S. and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toja, A. 2006, “Against the Tide? Core America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in the Mid-1990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515-531.
- Powell, G. and Butterfield, D. and Parent, J. 2002. “Gender and Managerial Stereotypes: Have the Times Changed?”. *Journal of Management*. 28(2): 177-193.
- Ragins, B. and Sundstrom, E. 1990, “Gender and Perceived Power in Manager-Subordinate Rel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273-287.
- Pascal, G. & Sung S. 2014.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 Palgrave macmillan.
- Therborn, G. 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Verso.